

불어의 순화 운동

洪 承 五

(서울대 교수 · 불문학)

1. 머리말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로 말을 걸면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니 그네들은 자기네 말에 대한 긍지가 어찌나 대단한지 영어든 독어든 다른 나라 말로 무엇을 물으면 그 말을 유창하게 할 줄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하고 불어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의사 소통에 큰 불편을 겪었다느니 하는 말을 우리들은 프랑스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듣는다. 불과 며칠밖에 체류하지 않는 여행자들에게도 피부로 느껴질 만큼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들의 말을 빌면 불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음악적이고 명쾌하고 정확한 언어라는 것이다. 아무리 난해한 사상이나 추상적인 관념이라도 불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아무리 섬세하고 미묘한 감정이라도 불어가 능히 묘사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훌륭한 특질을 갖춘 불어는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것인가? 아니다. 탄생한 시초부터 그 후 대대로 불어의 이러한 뛰어난 성질은 민중의 숨은 노력에 의해서 신장되고 탁마되고 세련되어 왔으며, 16세기 이후로는 불어를 최고도의 완성 단계에 올려놓고자 하는 이론가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또 사회적 환경의 격변에 따라 급격히 변질해 버릴 위기를 맞게 될 때마다 제동이 걸리고 독소가 제거되어온 것이다.

2. 초기의 순화 운동

기나긴 불어의 발달 과정을 보면 순화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노력이 집중된 것은 17세기의 일이다. 16세기에 종교개혁에 의해 생겨난 신교와 전통적인 구교의 신앙상의 대립으로 당파가 생기고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중엽부터는 앙부아즈 음모 사건과 같은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프랑스는 그 후 약 30년 동안 계속된 종교전쟁이라는 참담한 내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종교전쟁은 구교도가 신교도를 수백 명 일거에 학살한 성 바르텔레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 치열해졌고 전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동족 상잔의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이 내전 상태는 한 영특한 왕의 출현으로 예기치 않게 무사히 해결된다. 신교도 대학살을 감행한 발루아 왕조의 샤를르 9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를 계승하여 왕위에 오른 앙리 3세가 암살되고 나서 왕위는 그 당시 신교도의 총사령관이던 앙리 드 나바르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전국토가 황폐화하고 유혈이 계속되는 내란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그 때까지의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신·구 양파의 교리상의 대립을 문제로 삼지 않고 구교로 개종함으로써 왕위에 올라 앙리 4세가 되고 부르봉 왕조를 연다. 앙리 4세의 이 개종에 의해서 프랑스는 다시 통일되고 이윽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낭트의 칙령이 발표된다. 앙리 4세가 암살되고 그 다음 왕 루이 13세가 등극하자 국내에 다소의 동요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런대로 사회 질서가 회복되고 재상 리슐리외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의 제도가 정비되고 민심도 안정된다. 이에 따라 문화면 특히 언어면에서도 불어의 정리 순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시인 말레르브가 나와 혼란스러운 양상을 띠고 있던 불어를 정리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도 질서를 부여했다. 그에 의하면 불어는 정선된 언어이어야 하고 따라서 16세기까지만 해도 '고귀한 언어'로 뿌리내리고 있던 라틴어를 몰아내고 '통속적인 언어'로 여겨지던 불어를 선양할 목적으로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려는 과정에서 섞여든 다양한 낱말로 인해 지나치게 불어란 불어에서 고어, 신어, 방언, 속어, 전문어 따위 관용(慣用)어가 아닌 것을 추방하려고, 다시 말하자면 불어에 포함된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으면 모조리 부정하고 제거해버림으로써 불어를 순화하려고 노력하였다.

3.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불어의 순화

불어를 정리하고 순화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오래지 않아 설립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의해서 계승된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기원은 1629년 경부터 샤프랑, 콩보, 데마레 드 생소를랑 등의 작가들이 발랑탱 콩라르의 집에 모여 주로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재상인 리슐리의 추기경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왕권의 확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 재상이 그 모임을 르네상스 이탈리아에 있던 아카데미아를 본딴 공적인 기관 내지 어용 기관으로 만들어 국왕의 보호하에 두고 말에 관해 법제화를 추진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데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1634년이지만 국왕인 루이 13세의 칙허장이 내린 것은 1635년이고 40명의 회원을 맞아들여서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637년이었다. 아카데미에게 맡겨진 첫째 임무는 불어를 순화하여 올바른 국어를 확립하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으로 사전을 편찬하고 문법책을 간행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편찬 작업에 들어간 아카데미사전은 약 60년이나 1694년에 가서야 그 초판이 간행되었다. 모범적인 교양있는 사람들의 관용어를 수록함으로써 불어를 옹호하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에도 개정 작업은 계속되어 1932~35년의 제 8 판까지 간행되었고 지금도 제 9 판의 편집이 진행되고 있다.

4. 살롱과 순화 운동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불어의 순화에 기여한 것과는 다른 면에서 당시의 상류 사회에 형성된 사교계의 살롱도 불어의 순화에 큰 몫을 담당했다. 앙리 4세가 즉위함으로써 종교전쟁도 끝나고 세상이 평화로워짐에 따라서 사교 생활이 점점 활발해지고 많은 살롱이 파리에 속속 생기고 지방의 대도시에도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랑부이에 후작 부인의 저택인 오텔 드 랑부이에에서 열린 살롱이었다. 후에 랑부이에 후작 부인이 되는 카롤린 드 비본느 사벨라는 이탈리아 주재 프랑스 대사의 딸로 로마에서 출생했다. 프랑스에 와서는 앙리 4세의 궁정에 출입했는데 종교상의 대립과 내전이 가라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인 만큼 그 당시의 조정에 관계하던 사람들은 선진국인 이탈리아에 견주어보면 행동도 언어도

현저하게 상스럽고 거칠었다. 앙리 4세 국왕 자신도 몇 십 년 동안을 잔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부추와 산양 냄새를 풍기는 시골뜨기이고 그의 측근에도 언동이 거친 역전의 용사들이 많았다. 부인은 원래 몸이 허약하여 바쁜 궁정 생활을 견뎌내기도 힘들었지만 그러한 분위기에도 실망하여, 자기 취미에 맞추어 실계 개축한 자기 저택에 들어박혀서 1610년경부터 살롱을 열어 상류 사회 인사들이라든가 문인들을 초대해서 고상한 취미를 보급하려고 애썼다. 재색을 겸비한 부인은 '파란 방'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기 방에서 그 사람들과 문학을 비롯해서 그 밖의 모든 것을 화제로 삼아 고상하고 우아한 사교계를 형성했다. 그 곳에서는 사랑, 결혼, 미, 명예, 예의바른 행동 등이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많은 작품이 낭독되어 토론 평가되는 발표회장의 구실을 하기도 했다. 그 곳에 모인 내노라하는 인사들은 정숙하면서도 잘난 체하지 않고 교양이 있으면서도 유식한 체하지 않는 부인이 다소곳하고 조신한 태도로 적절하게 이끌어 나가는 사회 솜씨에 따라 담소하면서 겸손한 태도와 세련된 말씨를 배우고 회화의 매력력을 만끽할 수 있었다. 앙리 4세의 궁정의 우락부락한 분위기를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전 왕조인 발루아 왕조의 우아한 분위기를 그리워하던 귀족들은 이런 살롱에 열심히 출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살롱은 그 밖에도 롱그빌 공작 부인의 살롱, 싸블레 공작 부인의 살롱 등 여러 개가 있었다. 그것들은 종교전쟁 후의 사람들의 거칠대로 거칠어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자 하는 욕구에 일치했다. 평화가 정착해가는 시대는 예절, 세련됨, 우아함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살롱에서 다듬어지고 있었다.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고 칼날이 춤추던 전쟁터에서 싸우던 용맹한 영주들도 무장을 벗어버리고 살롱에 들어가게 되면서 귀부인들에게 상스럽다고 흉을 잡히지 않으려고 거칠어진 피부에 신경을 쓰고 한마디 말을 하는데도 극도로 조심을 해서 표현을 골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살롱의 경향은 지나치게 세련되다 보면 과장이 되고 무엇이든지 남들과 다른 것을 해서 이목을 끌고자 하는 욕구가 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지나친 경향에 빠진 남자들을 프레스외라 하고 여자들을 프레스외즈라고 부르며 그들의 정신을 프레스외지메라라고 한다. 이렇게 사교계에 출입하는 유한 계급의 남녀들이 살벌할 정도로 거칠어진 불어와 풍습을 순화하고 새로운 이미지가 풍부한 표현을 만들어낸 공적은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프레스외나 프레스외즈 들이 노골적이고 상스러운 것을 피하려는 노력이 지나쳐서 자기네 독특한 용어를 만들어 '뺨'을 '수치의

왕좌'라고 하고 '거울'을 '매력의 조인자'라고 표현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물리에르의 희극에서 조소의 대상이 되는 일도 없지 않았다.

5. 보즐라와 순화

한편 랑부이에 후작 부인의 살롱에 거의 하루도 걸르지 않고 참석하고, 아카데미 창립 이래의 회원이며 특히 그 사전 편찬의 중심 인물인 보즐라는 30년 동안 궁정이나 살롱에서 상류 계급 인사들의 말이나 용법을 수집하여 1647년에 '불어에 관한 주의 사항'이라는 책을 간행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상류 계급 사람들에게는 불어의 성전처럼 여겨졌다. 유명한 작가들은 모두가 이 책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작품을 정정했다. 그의 이론은 "언어에는 주인이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價用이다"라는 것이다. 그 관용은 궁정이나 파리의 상류계급의 사람들의 관용이고 '민중은 나쁜 관용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본문 끝에 붙은 '순수성', '명확성'이라는 제목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어, 신어, 방언, 비어 따위 '부정확한 어구'를 배척함으로써 그는 순수성을 찾고 '잘못된 어법'이나 '모호성'을 피해서 말의 명확성을 지키려고 했다. 그가 순화하는 데 힘쓴 불어는 그가 사망한 1650년경에는 고전주의 문학의 명작을 써낼만한 순수하고 안정된 특질을 갖추게 되었으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파리라는 프랑스의 일부 지역의 상류 계급이라는 일부 계급에 속하는 불어에 불과했다.

그 후에도 많은 순수론자들이 혹은 사전을 만들고 혹은 문법 규칙을 만들어 언어의 변덕스러운 변화를 억제하고 순수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지나친 순수성을 추구하다 보면 일반 국민이 쓰는 기름지고 활력이 넘치는 어휘를 놓치고 빈혈 기운이 있는 빈약한 어휘에만 매달리게 되고 또 생명을 가지고 부단히 변화해가는 언어를 고정시키려는 무리한 작업에 헛된 정력만 소모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국가나 개인에 의해서 속속 취해진다.

6. 체계적인 불어 순화의 노력

프랑스대혁명 이후 사회 제도가 근대화하면서 신문과 병역과 의무 교육이 언어의 균일화를 돕고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언어에까지 표준

어가 침투해 들어가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1881년 제3공화국에 의해서 무상 의무 교육 제도가 실시되면서 시골의 작은 마을에까지 초등 교육의 혜택이 미치게 되었다. 방언이 특히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남프랑스 지방에서까지도 불어를 가르치도록 표준화되었다.

1937년에는 언어학자 브뤼노의 희망에 의해서 문인, 언론인, 언어학자로 구성되는 '불어조사국'이 창설되어 필요에 따라 기술자들의 협력을 받으면서 불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면서 불어의 순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같은 언론 매체에서도 불어를 다루는 고정란 내지 프로그램을 두어 잘못된 용법을 바로잡고 좋은 용법을 제시함으로써 불어 순화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르 몽드'지에 오래 동안 연재된 르 비두아의 '불어 논단'은 확고한 고정 독자층을 가진 인기란이었다.

근래에 창설된 여러 단체들도 또한 불어의 순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어의 옹호'라는 단체는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모두 언어의 좋은 용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과학아카데미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과학용어 자문위원회'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든가 불필요한 차용어 따위를 과학 용어에서 배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불어 기술용어 연구위원회'는 그와 유사한 일을 기술 용어 차원에서 하고 있다. 한편 1957년에 창설된 '불어 어휘 조사국'은 어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언론, 여론, 전문가들을 연결하여 언론 등에서 어휘를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런가하면 알랭 기예르무가 이끄는 잡지 '생활과 언어'는 살아있는 언어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순수주의와 무기력과 혼란 상태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방언주의를 아울러 경계하면서 살아 있는 불어의 좋은 용법을 옹호하고 제시하여 일반 국민의 언어 순화에 전념하고 있다.

1963년에는 소르본느 대학의 비교 문학 교수 에티앙블이 '당신은 프랑글레를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여 근래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 오는 영어 내지 영어식 표현의 남용에 항의하고 강력한 비판을 가하면서 경종을 울렸다. 프랑글레란 프랑세(불어)와 앙글레(영어)를 붙여 만든 조어이다. 이에 자극을 받아 프랑스 정부도 [영어에서 온 외래어 중에서 불어로 표현 가능한 어휘는 불어로 바꾸어 일람표를 만들어 신문에 연재 발표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였으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7. 맺음말

현재 불어는 문란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수 많은 혼란기를 거쳐왔으나 프랑스 사람들의 으뜸가는 판단 기준이 되는 합리 정신과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발달한 심미적인 감각으로 슬기롭게 수습하여 그 때마다 무사히 빠져나왔고 불어의 특질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걸러내었다. 순화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순수주의자들의 맹목적인 보존 정신도 멀리하고 아무 비판 없이 외국의 유행이나 새로운 변화의 침투를 방임하는 태도도 경계하면서 프랑스는 정부 기관이나 국민 개개인이나 지금도 언어 순화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